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 우리는 함께 크는 나무 -*

A Mother-Child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for Poor Female-Headed Familie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강사 이경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과학부 가정학과

조교 이재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성미애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Ok, Sun-Wha

Lecturer : Lee, Kyung-H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Assistant : Lee, Jae-Rim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Sung, Mi-Ai

<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nd evaluates a mother-child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for poor female-headed families. The program consists of seven sessions including various physic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e goals of this program are (1) enhancing emotional support, health, and physical intimacy among the female heads of households and their children, (2) understanding each other's wants and personalities, and (3) facilitating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increasing knowledge on adolescent sexual development. Four mothers of poor female-headed families and four adolescent children of them wer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result of the program evaluation shows that this program had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their interaction.

▲ 주요어(key words) : 빈곤 여성가장 가족(poor female-headed families), 모-자녀관계 증진(mother-child relationship improvement), 신체적 친밀감(physical intimacy),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s)

* 본 연구는 2001년도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본 논문은 2003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 저자 : 옥선화 (E-mail : swok5481@snu.ac.kr)

*** 교신저자 : 이경희 (E-mail : hunsoo59@hanafos.com)

1. 문제제기

여성가장 가족은 현대의 여러 가족 유형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 여성가구의 비율은 14.7%에서 1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01). 이와 같이 여성가장 가족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도외시 할 수 없는 가족형태의 하나이며 따라서 가족학자들은 이러한 가족에 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취업구조나 임금구조로 볼 때 여성가구 주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직에 종사하므로, 이러한 여성가장 가족은 빈곤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99년 생활보호 가구 중 여성가장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57.3%나 되는 것(보건복지부, 2000)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가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곤 여성가장 가족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복지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행 제도적 접근은 대부분 남성이 생계책임자가 되고 가사업무의 주 담당자인 여성이 피부양자인 가족유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여성가장 가족은 경제적인 빈곤문제 뿐 아니라 정서적인 소외의 문제까지 떠맡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빈곤 여성가장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적인 지원의 문제인 까닭에 주로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이에 못지 않게 빈곤 여성가장이 겪는 절실한 문제는 자녀양육 및 교육과 같은 가족관계적 측면이다(변화순·장영진, 2001; 옥선화·성미애·이재림·이경희, 2002; 옥선화·성미애·허정원, 2001). 실제 IMF 이후 전국 626개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김승권·이승현, 1998)에 따르면 여성가구가 실직한 가정에서는 10.9%가 자녀의 비행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연구(강명순, 1995; 김정신, 1997; 김경애, 1998; 김영희, 1996; 변화순, 2000; 변화순·원영애·김성경·김영란·김민정, 2000; 유계숙·김양호·박정희·전춘애, 2002)에서 빈곤 여성가장에게 있어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힘든 부분이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 여성가장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경제적 복지 이외에 가족생활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 질 향상은 그들이 떠 안고 있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자녀의 지원이며(이소영·옥선화, 2002; 이재림·옥선화, 2001),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의 질이 가족원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Peterson & Zill, 1986)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빈곤 여성가장의 자녀양육 문제는 그들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이며, 이 과제를 잘 해결하였을 때는 그 관계의 질이 여성가장에게 있어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김경애, 1999). 따라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에 대한 지지적 강화는 여성가장들의 삶에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빈곤 여성가장 가족을 주대상으로 하는 심리사회적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해경, 1997). 다만 심리치료적 접근으로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연구(신경일·최순옥·김숙남·이정지, 2000)가 한 편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여 그들 가족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한 가지 지지적 방안으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발배경

1. 프로그램 개발과정

이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설계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첫 단계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일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통한 생활실태조사(옥선화 외 2인, 2001)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여성가장의 심리적 고통과 대처방식, 생의 의미를 조명하는 심층면접¹⁾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질문지 조사와 심층면접의 자료수집 지역에 위치한 S읍터와 연계가 되어 이 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족 및 읍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 여성가장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들의 프로그램 요구도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 시설의 간사와 면접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빈곤 여성가장 가족이 경험하는 모-자녀관계의 어려움을 추출하여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2. 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요구 조사

1) 심층면접에 참여한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옥선화 외 3인(2002)의 '빈곤 여성가장의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에 자세히 나와 있다.

1) 여성가장 본인과 자녀의 건강

빈곤 여성가장들은 생계를 위하여 직업생활을 지속하나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종이 대부분 고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함으로써 인해 신체적 피로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변화순 외 4인, 2000; 옥선화 외 2인, 2001). 빈곤 여성가장이 겪는 건강의 문제는 실제 면접자료 이외에 여성가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여성가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어 왔다(신유선·최순옥·김숙남, 2001).

(1) 본인의 건강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 허리가 아프고 이렇다라고 그래요. 병원에 인제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깐, 퇴행성 요추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관절까지만 요기까지 막 땡겨 오는 증세가 많아서 99년도에 양재동에 예루살렘 정형외과라고 아주 유명한 텐데 거기를 다녔어요. 그러더니 그때만 해도 뭐 약 먹으면 금방 낫고 또 괜찮고 그랬는데 그게 시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내성이 생겨서 낫지를 않고 아픈 거는 여전하고 그러는데... (오미향 씨)

협심증 비슷한 것이 있고. 저도 항상 약으로 살고... 심장이 약하고 항상 지쳐있어요. 왼쪽이 다 아프고 저리고 항상 침눕고 약 먹고 그러니까 항상 버는 돈을 전부 병원에 갖다주는 편이죠. 봉제를 했고 또 다니다가 그것도 한쪽이 아파서 그만두고 아파서 항상 그렇게 아팠어요. 그게 다 아파서 여의도 성모병원에도 가보고 다 신경에서 오는 거라고 다 스트레스 신경성 검사해보면 병명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왼쪽 어깨에서부터 등줄기로 갈라지듯이 아픈 거예요. (이경순 씨)

앞으로의 희망사항은 나 자신의 건강이 좀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박재숙 씨, S쉼터 입소면담자료)

(2) 자녀의 건강

걔 인제 지현이는 한참 빈혈이 심해 갖고 이렇게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더니 성장을 하니까 지가 먹고 그래서인지 좀 빈혈이 덜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가서 쓰러졌다 그래 갖고 산에서 애가 굴렀더라구여. 그래서 빈혈이 있었어 갖고 약을 먹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어지럽다 그래 갖고 빈혈약을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먹어났어요. 지금까지 좀 괜찮아요. (허혜순 씨)

큰 애가 조금, 몸이 약해요, 개는... 일년에, 지금 초

등학교 6학년인데 일년에 한 번씩 다리 부러지거나 팔 부러지고, 계속 지금 해마다 3년째 그러거든요. 개는 넘어질 때마다 급가고... 지금, 오른, 왼쪽 다리만 안 다쳤지, 오른쪽 무릎, 왼쪽 손목... 음... 이번에는, 겨울에 넘어져가지고, 여기 죄 급 가가지고 깎스도 못 하고 이려고 다녔잖아요, 또... 그러니까 1년마다 한번씩, 그러잖아요, 개는... (한혜숙 씨)

2) 여성가장 본인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

질문지 조사(옥선화 외 2인, 2001)를 통해 나타난 여성가장의 특성 중 하나는 정서적 문제인데, 전반적인 생활이 편안하기보다는 고되고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은 무력감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김태현·조희선, 1991)에서도 여성가장 가족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이 생활 전반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증명되고 있다(김영희·한경혜, 1996). 따라서 정서적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측면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보면 여성가장 가족이 되기 전에 남편 혹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한 정신적 상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S쉼터 입소자들의 경우 대부분 장래희망 사항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남편 또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였다.

내가 물어봐요. 니네들 아빠 생각 안 나니? 아이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하. 말도 끄내지 마세요. 아주 나보다 더 치를 떨어요. (아유,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네요) 네. 저도 그 결심(이혼 결심)을 하게된 동기도 애들 때문이고... (김보선 씨)

그러니깐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깐 여성의 전화라거나 그런 데에 상담하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래요, 결별기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씩 육할 때 보면 그러니깐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깐 가정이 환경적으로 받은 그런 상처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그랑지가 않고 모난 데가 많이 있어요. (종략) 우리 작은 애는 그게 확실히 느껴져요. 항상 산만하고 어디를 가도 그냥 가만히 못 있고 발을 움직이면서 손을 떠든다가 막 이룬다든가 그게 있어요. 어디 가서 차별하게 직장생활 그런 건 못할 것 같고... 항상 걱정하는 게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염려가 되요. (이경순 씨)

아빠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안선주 씨, S쉼터 입소면담자료)

2) 본문 중의 가명은 옥선화 외 3인(2002)의 '빈곤 여성가장의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에 참여한 제보자와 동일한 인물이거나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이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3) 자녀교육 및 자녀의 진로문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주거도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자녀에 대한 지도가 소홀해 질까봐 걱정하는 여성가장이 많았다. 빈곤 상황에서는 자녀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음도 알 수 있다(옥선화 외 2인, 2001).

공부 대개 잘 해요. 운동신경 좀 떨어져 그렇지. 그런 애들은 뭘 가르치면 좋을까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커서도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잡아주긴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상담할 데가 없어요. 찾아봐도 이렇게 없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갈 텐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편하게 말할 데가 없어요. (박경숙 씨)

그러니까요. 그 때가 고등학교 때니까. 개한테 신경 써 줘야 할 저기를 개한테 신경 못 써줬거든요. 애 아빠한테 매달려 있었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모든 게 다 힘들었지. 그 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모든 게 다 힘들었지. 그니까 저한테는 애 아빠가 그러니깐은 대학교 갈 저기가 저한테는 부담이 많이 왔겠쥬. 많이.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더 공부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성적이 많이 떨어져버렸었어요. (나영심 씨)

아이의 교육문제, 장래문제를 도움 받고 싶어요. (안선주 씨, S컴터 입소면담자료)

4) 대화시간 부족 및 대화기술 부족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은 빈곤가족 가족관계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난다(김경신, 1997; 변화순 외 4인, 2000; 유계숙 외 3인, 2002, Lindsey, 1998). 여성가장에게 중요한 지지원이 되는 자녀와의 대화 후에 느끼는 기분을 조사한 결과, 대화의 질에 관해서는 거의 반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옥선화 외 2인, 2001). 이는 대화시간 부족과 대화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인터뷰 자료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벌써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되더라고. 아들하고. 그러면 아들이 엄마 책 좀 많이 봐요. 대화가 안돼. 이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배워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죠. (나영심 씨)

그게 막... 막 스트레스 받쳐갖고... 막... 때리게 됐거든요 이렇게 때리면 제 분에 악에 받쳐 갖고, 많이... 조금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거 아냐? 언제면 최소한도 다른 애들, 지가 4학년이면 다 너같이 안 한다던데, 너는 어떻게... 이러면 엄마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데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4학년이면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또 제가 이렇게 또 뭐 남의 나라 굴이고, 외우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인제? 가리키면. 그걸 또 제가 못 시켜요, 또. 거 힘들어도 제가 또 해야 돼, 또, 성격이. (중략) 저녁으로 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좀 해주면 되는데, 안 한다고 소리만 뻑뻑 지르지. 그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두 번 어떻게 하겠쥬. 한 두 번은 하는데, 집에 갔다오면 배고프니까 빨리 해먹고 빨리 자고 싶고. 입에 배었어요 빨리 빨리 먹어라 빨리 빨리 씻어라 빨리 빨리 자라 그게 입에 배었어, 제가. (강선숙 씨)

5)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녀 다루기가 더 힘들어 졌고, 특히나 시설에 거주할 경우 자녀들의 사춘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함을 표시했다. 이는 빈곤 여성가장의 모-자녀 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옥선화 외 3인, 2002)에서도 드러나며, 특히 시설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근데 이제... 요새 조금 애로사항인 게... 인제 작은애가 여자애고 사춘기가 왔어요. 근데 저희 지역이, 학교가 서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산동네 애들이다 보니까 부류가 딱 차이가 저요. 그래가지고 조금 학교 분위기가 안 좋다고... (중략) 그런데 혹시라도 흔들리지 않을까... (중략) 말썽은 인제... 뭐라 그러나 조금 자기 외모에 신경을 써요. (박명자 씨)

애들 지금도 우리 머스매 중2라도. 지금도 그래요 내 앞에 좌악 아능코(안고) 자고. 애가 좀 작아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아후 내 새끼 고치가 열만큼 컸나 한 번 보자 하고 하면 턱 보여줘요 애가. 보여주고 목욕도 내가 지금도 시키고 지 혼자서 가기 힘들니까. 머리도 씻고 팬티도 내가 맨날 갈아 입혀 주고 인자 작년 올해 올해부터 팬티를 갈아 입혀지를 못하고 엉덩이를 탁 내밀더라고 그래 인자. 지가 나도 인자 할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묻 놔겠데. (정영숙 씨)

사춘기가 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해요. 사춘기가 되면 말수도 적어지고, 신경질도 많아지고, 애기를 나누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선주씨, S컴터 입소면담자료)

3.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통해 빈곤 여성가장의 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증진, 상호 정서적·인지적 이해, 대화 촉진,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한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 진다. 1단계(1, 2차시)에서는 상호신뢰 및 건강증진·신체적 친밀감 형성(3)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단계(3, 4차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지지, 욕구·소망·성격에 대한 이해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3단계(5, 6차시)에서는 상호관계의 질을 증진시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화기술 및 청소년 성교육 정보를 습득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 4단계(7차시)는 프로그램의 종결이 아니라 본 프로그램 교육을 통하여 증진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끝난 후 일상생활에서 관계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성하였다.

III.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명칭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크는 나무'라고 정하였다.

2. 프로그램 관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식은 집단상담의 원리에 기초하였다.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피교육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내적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피교육자들이 구체적이고 활동중심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김경신, 1997) 실제적이며 활동을 통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프로그램 목표

이 프로그램은 모-자녀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라포 형성하기(1차시). 둘째, 신체적 친밀감을 통해 건강 증진시키기(2차시). 셋째, 상대방의 욕구·소망 알기(3차시). 넷째, 서로 다른 상대방의 성격 이해하기(4차시). 다섯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좋은 대화기술의 익히기(5차시). 여섯째, 청소년기 성에 대해 알기(6차시). 일곱째, 모-자녀간 서로의 소중함 느끼기(7차시)의 7가지 세부적인 하위목표를 가진다.

4. 프로그램 실시

1) 프로그램 참가자 및 장소 선정과정

프로그램의 실시에 앞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여러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의뢰한 결과, 질문지 조사와 심층면접 대상지역에 소재한 S센터에서 빈곤 여성가장 가족에 대한 데이터를 다수 확보하고 있음을 알고 참가자 모집을 의뢰하였다. S센터는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족공동체로서, 노숙 가족 및 빈곤 모자가정, 빈곤 부자가정 등 빈곤에 처한 가족의 일시 거주시설이다. 또한 인근 빈곤지역의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자활지원을 돕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센터 실무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 여성가장 가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기에, 연구자들은 2002년 1월부터 시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프로그램 참가 가족의 특성을 소개받고, 담당 간사를 배정 받았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들어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기준은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센터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모자가족 중 청소년 자녀가 있는 여성가장 가족으로 어머니와 자녀 모두 프로그램 참가를 기꺼이 수락한 5쌍으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충분한 활동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인근의 종교기관으로 정하였다.

2)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은 2002년 4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7주간 주 1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시간은 다음날의 출근에 대한 부담이 없는 토요일로, 여성가장들의 퇴근 이후인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이었다. 총 7차시 중 5차시까지는 5쌍의 모-자녀가 참가하였으나, 1쌍이 남편과의 재결합으로 프로그램에서 탈퇴함에 따라 6차시부터는 4쌍이 참가하였다. 최종 참가자는 <표 1>과 같이 여성가장 4명과 자녀 4명이었다.

<표 1> 프로그램 참가자의 개인적 특징

이름	연령(세)	결혼지위	현주거지	학력	하는 일	자녀(밑줄은 참가 자녀)
박재숙	46	사실상 이혼	월세방	초졸	미싱사	남(중2)
이명순	39	법적 이혼	월세방	초졸	미싱사 보조	남(중3) 여(중1)
안선주	45	사실상 이혼	센터	중졸	약국 보조	여(고1) 여(중2)
최말순	44	사별	센터	고중퇴	미싱사 보조	여(초6) 남(초5)

3) 2차시에서는 피교육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스포츠맛사지법 습득을 설계하였는데, 이를 통해 모-자녀관계 증진과 함께 신체적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3차시 미술치료는 정서적 불안감을 치유하며 상대방의 욕구와 소망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4차시의 성격검사는 모-자녀간 성격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녀의 적성을 발견하여 진로지도에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주진행자 1명과 보조진행자 2명이 담당하였으며, 스포츠맛사지를 배운 2차시, 가족화 그리기인 3차시, MBTI 성격검사를 실시한 4차시, 청소년 성교육을 받은 6차시는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초빙되어 진행하였다. 자리 배치는 6차시와 7차시를 제외하고는 가족별로 앉도록 하였다. 6차시에는 자녀와 어머니가 별도로 앉되 어머니가 자녀의 모습

을 볼 수 있도록 자녀가 앞쪽에 앉았으며, 7차시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도록 배치하였다.

한편, 프로그램 참가자들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프로그램 중에 착용할 티셔츠를 첫 시간에 나누어 준 뒤 모든 차시에 참석자와 진행자가 다 같이 입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모-자녀가 일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자녀는 동일한 색상을 입도록 하였고, 가족별로는 다른 색상으로 하였다. 매 차시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다양한 간식을 준비하여 다과시간을 가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과 질문을 나누었다.

5. 프로그램 내용

<표 2> 1차시 : 나눔의 시간

목표	1. 교육자와 그룹간, 그리고 그룹간 라포를 형성한다 2.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진행단계	내 용	준비물
도입 (35분)	1. 진행자 소개 및 프로그램 소개 2. 사전검사 실시 3. 워크북 배부 및 집단규칙 정하기 ① 지각, 결석하지 않기 ② 대신 말해주지 않기 ③ 독점하지 않기 ④ 비밀보장 ⑤ 집단내의 바람직한 대화관계 유지에 힘쓸 것 : 규칙준수를 서약하는 서약서에 서명한다 4. 프로그램 티셔츠 나누어주기 5. 프로그램 일정별 내용 소개	사전검사, 질문지 펜 서약서 워크북 프로그램 티셔츠
활동 (35분)	1. 별칭 짓기 ① 별칭은 본인이 짓거나 서로 의논하여 지어서 명찰에 적는다 ② 그 별칭을 왜 선택했는지 참가자들에게 이야기한다 ③ 다른 사람의 별칭을 외우는 게임을 한다 2. 신문지 위에 올라서기 ① 어머니와 자녀가 신문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② 신문지를 크게 펴서 둘이 함께 올라간다.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서 있도록 한다 ③ 신문지를 반으로 접어 올라선다. 또 다시 반으로 접어 올라선다 계속 되풀이한다 ④ 신문지가 발바닥만 해지면 둘이 부둥켜안고 한 발을 들게 한다 다음에는 한 사람이 업고 한 발로 서게 한다 ⑤ 각자 최후에 남은 팀에게 상품을 준다	명찰 싸인펜 신문지 상품
종결 (35분)	1. 만남을 축하하는 케이크 노래하며 숫돌 끄기 2. 오늘의 활동에서 느낀 점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나누기	케이크 음료수

<표 3> 2차시 : 스킨십을 통해 건강 챙겨주기

목표	1. 신체적 공유활동을 통해 서로 신체적으로 친밀해진다 2. 피로한 육체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방법을 배운다	
진행단계	내 용	준비물
도입 (15분)	1. 자신의 별칭 소개 2. 스포츠맛사지 강사 소개	명찰
강의 및 활동 (90분)	스포츠맛사지 배우기 : 강사의 시연 후 모-자녀 상호간 실습 ① 앞면 ② 뒷면 ③ 복습	워크북 필기도구
종결 (15분)	오늘의 활동에서 느낀 점 나누기	햄버거 음료수

<표 4> 3차시 : 서로의 욕구·소망 알기

목표	자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진행단계	내 용	준비물
도입 (20분)	1. 가족화 강사 소개 2. 미술치료에 대한 설명 3. 마음의 공을 주고받으면서 소원 이야기하기 ① 팔운동으로 몸풀기를 한다 ② 마음의 공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한다 ③ 마음의 공에 기합을 넣어서 소원을 빈다	명찰 워크북
활동 (100분)	1. 문 만들기 ① 4절 도화지를 반 접어서 겹에 자신으로의 문을 만들고 그 안에 욕구와 소망, 원하는 것, 부족한 부분 등을 그려서 자신을 표현한다 ② 각자의 문을 벽에 붙이고 나와서 설명한다 2. 동적 가족화 ① 자신의 가족이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을 그린다 ② 자녀들은 자신의 학교생활도 그린다 ③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고 강사가 해석해 준다	4절 도화지 16절 도화지 크레파스 싸인펜 연필 지우개 스카치테이프 라디오 배경음악
종결 (10분)	오늘의 활동에서 느낀 점 나누기	샌드위치 음료수

<표 5> 4차시 : 서로 다른 성격 이해하기

목표	1. MBTI 성격검사를 통해 모-자녀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이해한다 2. MBTI 성격검사를 통해 자녀의 적성을 파악한다	
진행단계	내 용	준비물
도입 (15분)	1. MBTI 성격검사 소개 2. MBTI 성격검사 응답방법 설명	명찰 MBTI 검사지 (성인용, 아동용)
강의 및 활동 (90분)	1. MBTI 검사 응답 및 채점 2. 각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 3. 각 성격 유형의 취약점 설명하기 ① 각 성격 유형의 취약한 부분 및 게임방식을 설명한다 ② 서로 부딪치기 쉬운 차원(I-E, N-S, T-F, J-P 차원)에 대해 설명한다 4. 각 성격 유형의 적성 파악하기	볼펜 연필 화이트보드 워크북
종결 (15분)	오늘의 활동에서 느낀 점 나누기 : 서로의 성격 차이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모-자녀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이야기나누기	치킨 음료수

<표 6> 5차시 : 좋은 대화 나누기

목표	1.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을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 대화시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진행단계	내 용	준비물
도입 (10분)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 이해의 필요성	명찰
강의 및 활동 (95분)	1. 기분 좋은 대화, 기분 나쁜 대화 : 8절지에 4개의 공간을 넣어 다음의 내용에 대한 그림 구성하기 ① 가장 듣기 좋았던 말 ② 가장 상처받았던 말 ③ 부탁하고 싶은 말 ④ 듣고 싶은 말 2. 공감적 이해 :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 “~하기 때문에 ~하게 느끼는군요” 3. 나-메시지 전달법 :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 “~하니까 ~해서 ~하다”	8절 도화지 크레파스 싸인펜 워크북 필기도구
종결 (15분)	오늘의 활동에서 느낀 점 나누기	김밥 음료수

<표 7> 6차시 : 청소년기 자녀 성교육

목표	청소년기 자녀의 성교육을 통해, 어머니는 자녀 성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녀는 올바른 성교육을 받는다	
진행단계	내 용	준비물
도입 (5분)	성교육 강사 소개	명찰
강의 및 활동 (95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性)하면 생각나는 단어 또는 느낌 적어보기 : 적은 내용을 몸, 관계, 쾌락, 생명의 범주로 나누어 붙여보도록 한다 2. 사춘기 남학생/여학생의 고민 5가지 : 차트를 한 개씩 떼면서 설명한다 3. 남녀의 생식생리: 비디오 시청 “그래, 그건 그래” 4. 어머니와 함께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나누기 : 어머니들이 성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이해하도록 한다 어머니들과 강사가 활동할 동안 자녀는 성에 관한 그림책 보기 5. 학습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풀고 설명하기 6. 성기 명칭 익히기 : 바른 명칭 사용의 중요성 이해한다 	성의 범주 그림 포스트일 워크북, 필기도구 고민 목록 차트 비디오, 그림책 어머니용 유인물 자녀용 학습지 자궁모형 경구피임약 임신진단기구 남녀성기 그림
종결 (5분)	오늘의 활동에서 느낀 점과 궁금한 점 나누기	햄버거 음료수

<표 8> 7차시 : 소중한 우리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머니와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2. 서로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강화시킨다 3.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이 좋아하는지를 깨닫고 이를 계획한다 	
진행단계	내 용	준비물
도입 (10분)	스포츠맛사지 복습	명찰
활동 (6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로의 소중한 느끼기 : “진흙 덩어리 이야기” 2. 편지 쓰기 : 모/자녀에게 편지 쓰기 3. 결심 선서하기 ① 내일부터 모/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결심을 각자 적는다 ② 결심을 앞에 나와서 선서한다 	초, 종이컵 배경음악 편지지 필기도구 A4 용지
종결 (3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후검사 실시 ① 모-자녀관계 척도에 응답한다 ② 프로그램 평가 질문지에 응답한다 2.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3. 총정리 ①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서로 나눈다 ② 수료증(폴라로이드 사진, 편지, 결심 첨부)을 수여한다 	사후검사 질문지 필기도구 폴라로이드 카메라 수료증 피자, 음료수

IV. 프로그램 평가

1.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들에게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설정한 5개의 교육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질문하였다. 전체 참가자가 평가한 교육목표 달성도는 <표 9>와 같다. 참가자들은 교육목표의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에 대한 이해 증진과 모-자녀관계증진에 대해서는 모든 참가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표 9> 전체 참가자가 평가한 교육목표 달성도 N=8 (%)

	전혀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됨
신체적 친밀감 증진(2차시)			1 (12.5)	3 (37.5)	4 (50.0)
상대방 욕구·소망 이해 증진(3차시)				5 (62.5)	3 (37.5)
상대방 성격 이해 증진(4차시)				5 (62.5)	3 (37.5)
대화기술 향상(5차시)			2 (25.0)	2 (25.0)	4 (50.0)
성교육에 도움/성지식증진(6차시)			1 (12.5)	2 (25.0)	5 (62.5)
모-자녀관계 증진(종합)				1 (12.5)	7 (87.5)

여성가장과 청소년 자녀가 평가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도는 <표 10>과 같다. 자녀들에 비해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좀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경우 2차시의 스포츠 맞사지 배우기, 5차

<표 10> 모, 자녀별 교육목표달성도 평가

모=4 / 자녀=4 (%)

	전혀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모	자녀	모	자녀	모	자녀	모	자녀	모	자녀
신체적 친밀감 증진(2차시)					1 (25.0)	1 (25.0)	2 (50.0)	3 (75.0)	1 (25.0)	
상대방 욕구·소망 이해 증진(3차시)							2 (50.0)	3 (75.0)	2 (50.0)	1 (25.0)
상대방 성격 이해 증진(4차시)							2 (50.0)	3 (75.0)	2 (50.0)	1 (25.0)
대화기술 향상(5차시)					2 (50.0)	2 (50.0)		2 (50.0)	2 (50.0)	
자녀 성교육에 도움/성지식 증진(6차시)					1 (25.0)	1 (25.0)	1 (25.0)	3 (75.0)	2 (50.0)	
모-자녀관계 증진(종합)							1 (25.0)	4 (100.0)	3 (75.0)	

시의 좋은 대화나누기, 6차시의 청소년자녀의 성교육 시간이 도움이 된 정도가 다른 차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평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사전검사는 1차시 내용의 시작에 앞서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는 7차시 내용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실시하였다. 사전-사후검사를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두 가지이다. 우선, 모-자녀간 상호행동의 증진을 측정하기 위해서 Prinz, Foster와 Kent(1979)가 제작한 IBQ(Interactive Behavior Questionnaire: 모-청소년자녀 상호행동 평가) 44문항을 사용하였고, 모-자녀간의 일반적인 관계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은강(1994)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11>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N	평균(표준편차)
모-청소년자녀 상호행동 평가	사전검사	8	14.50(3.82)
	사후검사	8	28.63(3.93)
모-자녀관계 만족도	사전검사	8	31.38(4.34)
	사후검사	8	30.88(3.98)

우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참가자들의 모-청소년자녀 상호행동평가는 평균 14.50점으로 낮은 수준(최도점수범위: 0점~44점)으로 나타났으며, 모-자녀관계 만족도는 평균 31.38점으로 중간보다 낮았다(최도점수범위: 10점~40점).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성가장 가족이 모-자녀관계에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사후검사 결과 모-청소년자녀 상호행동평가는 평균 28.63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최도점수범위: 0점~44점)이었으며, 모-자녀관계 만족도는 30.88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최도점수범위: 10점~40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비교는 사례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쌍체 티검증(paired t-test) 대신, 비모수통계분석에서 이에 해당하는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은 두 관측치간 차이의 부호와 크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분포를 비교하는 방법이다(이학식·김영, 2001). 분석결과는 <표 12>과 같다.

모-청소년자녀 상호행동 평가의 경우, 모든 참가자의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 결과, 사후검사의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편, 모-자녀관계 만족도 점수의 경우에는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참가자가 8명 중 5명이었으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태도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개별 행동 차원의 모-자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사전-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 (N=8)

		N	평균순위	순위합	Z
모-청소년자녀 상호행동 평가	사전>사후	0	.00	.00	-2.53*
	사전<사후	8	4.50	36.00	
모-자녀관계 만족도	사전>사후	3	6.33	19.00	-.14
	사전<사후	5	3.40	17.00	

* $p<.05$

3. 질적 평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질문지를 통한 평가 이외에 매회 프로그램 진행 후 토론 시간에 가졌던 참석자들의 응답 및 운영자의 소감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종료 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참가자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분석에서 얻을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의견을 좀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다.

1) 각 차시에 대한 평가

1차시에서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참석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여,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이 실생활에 어떠한 보탬이 될지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 더불어 모든 참석자 각 쌍에게 커플

티셔츠를 제공하고, 각 차시마다 상품과 간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이는 참석자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참석 동기 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2차시에서는 스포츠맛사지 활동을 통하여 모-자녀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친밀감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나, 신체적 활동이 주활동이 되다보니 다소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 스포츠맛사지 강사 이외에 보조진행자 3명이 더 참가한 것이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차시에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살충동과 같은 자신의 내면적 상처들이 드러났으며, 서로의 어려움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과정에서 참석자 여성가장들 사이에 협력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촉진적 역할을 하였다.

4차시 서로 다른 성격 이해하기를 통해 참석자 대부분이 그동안 모-자녀의 갈등적인 상황에서 대한 이유를 명쾌히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여성가장들이 자녀들의 적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5차시 좋은 대화 나누기 시간은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다소 어려운 것으로 우려한 차시이었으나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자녀들과의 바람직한 대화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들에게 있어 이 방법은 상당히 참신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호응도가 좋았다.

6차시 청소년기 자녀 성교육 시간은 자녀들에 비해 어머니들에게 상당히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시간이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접해 본 적이 있는 지식이 많았으나, 어머니들에게는 평소애 난감했던 자녀 성교육 방법을 익히는 동시에 본인의 잘못된 성지식을 파악하는 데에도 보탬이 된 시간이었다.

7차시 소중한 우리 시간에는 촛불의식과 편지 쓰기, 새로운 결심 선서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석자들의 모-자녀 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결심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에 즉석 폴라로이드 사진을 첨부한 수수료에는 서로에게 적은 편지를 넣어주고 앞으로도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꼼꼼하게 마련된 소품들이 프로그램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데 일조한 차시였다.

2) 개방형 문항을 통한 평가

첫째, 참석자 대부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진 것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입장을 달리해 보니, 그 동안 서로에게 가졌던 서운했거나 미운 감정이 고맙고 감사하거나 대견하다는 등의 긍정적 느낌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내 자신이 아이가 되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박재숙 씨)

자녀와 엄마가 함께 참석하게 되어 아이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이명순 씨)

즐겁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서 대화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변했어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던 같아요. (안선주 씨)

아이와 더 친해진 것 같고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최말순씨)

엄마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박재숙씨 아들)

엄마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힘든 점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명순씨 딸)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안선주씨 딸)

엄마랑 더 좋아졌어요. 함께 활동하니 기뻐구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랑 얘기하니 참 좋았어요. (최말순씨 딸)

둘째, 몇 명의 가족에게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녀 뿐 아니라 다른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되어 전체적인 가족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그 동안 두 아이가 다르다는 걸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와도 성격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이명순 씨)

아이들이 사춘기에 놓여 있어 힘들었는데 많은 대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큰 애가 더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관계로 여기에 같이 오지도 못했어요. 요즘 제가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가족 모두 참석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안선주 씨)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목한 가정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박재숙씨 아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S센터 및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모-자녀 4쌍, 총 8명이 참석하여 2002년 4월 13

일부터 5월 25일까지 7주간 주 1회 토요일에 약 2시간씩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요구 분석을 통해 나타난 모-자녀관계상의 어려움은 건강, 정서적 상처, 자녀의 진로문제, 대화문제,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섯 가지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의 하위목표들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되었다. 또한 어머니들의 평가가 자녀들의 평가에 비해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모-자녀 상호행동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와 자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모-자녀관계의 일반적인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해 활동 중심적이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본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실습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은 참가 인원이 4쌍 정도인 것이 집단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만족도가 덜 높게 나타난 내용은 스포츠맛사지 배우기, 대화기술 익히기, 성교육 실시였다. 스포츠맛사지 배우기 시간에는 한 명의 자녀가 관심을 덜 나타낸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기술을 익히는 내용은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다소 지루한 활동이 되어 도움이 덜 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이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부모세대에 비해 자기 중심적이고 그들만의 자유분방한 언어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교육 시간에 대한 자녀들의 평가가 다소 낮았던 것은 학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룬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기술 익히기, 성교육 실시는 어머니들에게만 실시하는 것도 대안적인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이 모-자녀관계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일반적인 태도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호작용 행동방식에서의 변화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인 활동중심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일반적인 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크게 차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특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한국 모-자녀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은 계층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도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본 프로그램을 다른 여성가장 가족에게 재실시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후검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교육 실시에 있어 남녀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성교육 내용의 정교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본 프로그램은 소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웠으나, 추후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중에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참가자들이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진행상 이에 대해 심층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이들이 프로그램 참가와 더불어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적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교육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응답결과가 긍정적인 평가에 치중해 있어 보다 나은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비판적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를 위해 더 정교한 추후평가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은 다각도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을 대상으로 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 가족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증진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제언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한편,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실시가 이루어진다면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데 본 프로그램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접수 일 : 2003년 1월 9일
- 심사 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4월 14일

【참 고 문 헌】

강명순(1995). 여성과 빈곤. 여성. 1995년 8월호, 36-45.
 김경선(1997).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2), 187-199.
 김경애(1998). 편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과 과제. 인문과학연구, 4, 215-243.
 김경애(1999). 흔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역할: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여성학, 15(2), 87-115.
 김승권·이승현(1998). 여성실직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영희·한경혜(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263-276.
 김태현·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간의 가족스트레스 관련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가족학논집, 3, 99-129.
 변화순(2000).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원영애·김성경·김영란·김민정(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보건복지부·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신경일, 최순옥, 김숙남, 이정지(2000).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2(2), 127-146.
 신유선·최순옥·김숙남(2001). 여성가장의 우울과 지각된 건강상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1), 44-55.
 옥선화·성미애·이재림·이경희(2002). 빈곤 여성가장의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55-78.
 옥선화·성미애·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3.
 유계숙·김양호·박정희·전춘애(2002). 모자보호시설 입소모자가정의 가족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요보호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세미나자료집, 7-28.
 이소영·옥선화(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40(7), 53-68.
 이재림·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이학식·김영(2001). SPSS 10.0 매뉴얼. 서울: 법문사.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통계청(2001).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현운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Lindsey, E. W.(1998). The impact of homelessness and shelter life on family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7, 243-252.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295-307.
 Prinz, R. J., Foster, S., & Kent, R. N.(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91-700.